

예술로 경제 녹이며 한반도 평화 꿈꾼다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 전국투어 돌입
27일 정읍 시작 내달 10일까지

순천·여수·거창·산청 등
상처 안고 있는 5개 지역서 공연

“한반도 평화를 예술을 통해 많은 이들과 자꾸 이야기해,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북녘 땅을 지나 육로로 국경을 넘어보길 소망합니다.”

지난 21일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 2019 전국투어' (이하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 전국투어) 첫 공연을 앞두고 만난 김원중 공연분과장은 이번 무대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 전국투어는 27일 정읍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순천, 3일 여수, 9일 거창, 10일 산청에서 이뤄진다.

이번 공연이 이뤄지는 정읍과 순천, 여수, 거창, 산청은 국가폭력에 의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곳들이다. 동학농민운동과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한국전쟁 등이다.

김원중씨는 “아직까지 역사적 상처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찾아가 예술을 통해 치유할 예정”이라며 “우리 안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 평화의 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원중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 전국투어가 오는 27일 정읍을 시작으로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25일 비엔날레전시관 앞에서 열린 '길을 열며' 공연 모습.

공연은 야외에서 이동식 차량을 무대로 진행된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통일과 평화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다.

김씨는 “실내에서 공연을 열면 관심 있는 사람들만 와서 보기 마련이다”며 “관심 없는 사람들도 지나치다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 진행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

무대는 광주의 뮤지션과 화가, 시인 등 예술가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합류

해 다양하게 꾸민다. 광주에서는 가수 김원중과 사진작가 리일천, 화가 주홍, 밴드 프롤로그, 여성듀오 꽃향이 함께하며 오월어머니합창단이 정읍과 여수, 거창 무대에 특별 출연해 이번 투어의 의미를 더한다.

김씨는 “종전평화협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축구와 같은 체육행사가 북에서 이뤄지는데, 이번 전국투어 공연이 문화행사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또 이번 투어가 영감이 되어 각 분야에서 다양한 관련 행사들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코리아-유라시아 로드 런'은 한반도 허리를 가르

는 휴전선 철조망 일부를 잘라내어 길을 내고 북녘 땅을 지나 육로로 국경을 넘어보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된 문화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이후 공연, 전시, 출판, 음반 등 문화예술사업 뿐만 아니라 초청강좌, 문화예술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공연은 27일 오후 2시 정읍 정읍역 광장을 시작으로 내달 2일 오후 3시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3일 오후 3시 여수 이순신광장, 9일 오후 3시 거창 거창사건추모공원, 10일 오후 2시 산청 목화장터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651-0815.

김혜진기자 hj@srb.co.kr

호남 의향 정신 공부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수장생모집

호남은 언제부터 '의향'이 되었을까? '의향'이 호남 고유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기까지 과정을 '시대정신', '의병', '독립운동', '동학'을 열쇳말로 풀어가는 호남한국학 교양강좌가 개최된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백수인)이 '절의로 시대의 격변을 이끈 호남, 의향이 되기까지'를 주제로 마련한 강좌는 네 번의 강좌와 현장 답사로 진행된다.

강좌는 오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전개된다. 답사는 다음달 9일 오전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한승원 작가 초청 강연과 함께 백범 김구 은거기념관, 파청성첩비, 회령진성, 정남진 전망대 등 보성, 장흥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29일 '의향 호남과 시대정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서구갑의원, 전 광주학교 교장), 31일 '절의와 호남의 선비들'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11월5일 '의병, 왜 호남인가?' (홍영기 순천대 명예교수), 11월7일 '호남지역 독립운동의 뿌리를 찾아서' (김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로 꾸려졌다.

수강료는 없고 답사 참가비 1만원이 있다. 문의 062 234 2727 김혜진기자 hj@srb.co.kr

소극장 연극의 매력 광주서 누리세요

광주 포함 지역 극단 다섯 작품 선봬
연극계 전설 박정자 무대 등 다양

'연극 있다-있다 페스티벌' 백미
'오색빛깔, 오색마당' 22일~내달 30일

광주를 포함한 지역 극단들의 대표 연극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씨어터연바람이 진행하고 있는 '연극 있다-있다 페스티벌'의 백미인 '오색빛깔, 오색마당'이 시작됐다.

'오색빛깔, 오색마당'은 각 지역에서 소극장 연극에 앞장서고 있는 5개 단체가 꾸민다.

시작은 광주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알렸다. 지난 22일 시작해 23일까지 오후 7시 30분 무대를 갖는 크리에이티브드라마는 푸른연극마을과의 협업을 통해 5월 창작극 '고백:얼굴 뒤의얼굴'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80년 5월 광주를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마주한 두 남자의 고백을 중심으로 39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80년 5월은 현재진행형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이 무대는 푸른연극마을의 상임연출인 오성환이 희곡을 쓰고 배우로 출연해 눈길을 끈다.

두 번째 주자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극인 중 한명인 박정자 배우가 나선다. 박정자 배우는 '박정자의 연극 talk talk'로 25-26일 오후 7시30분, 오후 4시 관객들을 만난다. 지난



연극 '육주'

1962년 연극 '페트라'를 시작으로 한해도 쉬지 않고 연극 인생을 살아온 그가 인생과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박 배우가 이번 페스티벌의 취지를 충실히 공감하고 서울 외 지역 소극장으로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연극마니아와 만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내달 1~2일 오후 7시 30분과 오후 4시에는 부산 극단 시나위의 '빨'이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삶과 죽음에 대해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여정을 심리적 이미지로 그려냈다. 고마나루 향토 연극제에서 금상을 받고 당진 전국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아 수준 높은 무대가 기대된다.

창주 극단 '늘픔'은 내달 8-9일 오후 7시 30분, 오후 4시에 '엄마의 치자꽃'을 선보인다. 가족드라마로 호평을 받은 노희경 작가가 쓴 작품으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우리 지역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무대에 올리는 '육주'는 내달 22-30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 오후 4시에 만나볼 수 있다. 살아온 인생과 가까이 다가온 죽음을 아름답게 전달하는 작품이다. 광주와 부산, 대구, 전주, 춘천 등 전국 5개 도시의 관객들의 극찬을 받은 연극으로 푸른연극마을의 신작 레파토리아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을 대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하는 연극 축제로 옷차림이 소극장 연극을 오래도록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획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관람료는 각 작품당 2만원이나 모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리패스티켓은 5만원으로 60% 할인된 가격에 연극을 감상할 수 있다. 프리패스티켓은 네이버 블로그나 전화로 구입 가능하다. 20인 이상 단체 관람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예매는 씨어터연바람 블로그와 네이버페이, 플레이티켓 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가능하다. 문의 062-226-2446.

김혜진기자 hj@srb.co.kr

가을하늘 아래 즐기는 과학 한마당

국립광주과학관, 내달 3일까지
개관 6주년 기념 가을과학문화축제

국립광주과학관 개관 6주년 기념 가을과학문화축제가 지난 19일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출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선보인다.

'시월이 과학으로 물들다'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사이언스 메이킹, 과학을 생각하며 배우는 사이언스 스킵,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사이언스 라운지, 호남권과학관과 함께 하는 사이언스 투게더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 등이 마련됐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행사개최 첫 주에만 2천여명이 과학관을 찾으며 큰 호응을 보였다.

시민들이 호응 아래 이번 행사는 다음달 3일

까지 이어진다. 축제 기간 중 평일 4회, 주말 6회 운영되는 사이언스 메이킹은 수질개선 EM공 만들기,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미니 에어로켓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광주 북구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스킵로는 드론아카데미가 23일까지 과학관 주출입구 필로티에서 열린다. 어린이 구연동화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진행되며 11월 2일과 3일에는 과학관 직원이 전하는 북콘서트를 북카페에서 운영한다.

사이언스 라운지에서는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복합공연이 관객들을 만난다. 26일은 과학뮤지컬 '장영실을 찾아라', 내달 2일은 요즘송 등 스위스민속음악 공연, 이어 내달 3일은 천체투영관 콘서트와 팡파레 공연 '희망나눔콘서트'가 열린다. 또 야외광장에 설치된 VR 시뮬레이터



도 매일 체험할 수 있다. 도서·장난감 나눔장터는 다음달 3일 하루 동안 과학관 주출입구 필로티에서 열리며 1만원 이하의 도서, 완구류를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도 호남권과학관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투게더는 매일 샌드크래프트가 진행되며 23-24일에는 전남과학교육원의 이동과학차 4D영화상영회, 26-27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에어로켓 나로호 조립키트 만들기가 마련된다.

김혜진기자 hj@srb.co.kr

광주시 건축상에 양림동 '아크레타 양림'

30일~내달 2일 시정 시민홍서 전시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에 남구 양림동 '아크레타 양림'이 선정됐다.

비주거부문 금상을 수상한 '아크레타 양림' (㈜건축사사무소 예코플랜)은 기존 한옥의 감나무와 골목들을 살려 옛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한편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탄생시켜 구도심 활성화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밖에도 남구 양림동 '힐사이드 양림' (㈜포유 건축사사무소)이 은상을, 동산에는 동명동 'Bldg. REGAON' (㈜리가는 건축사사무소)과 서구 마북동 '마북공간'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이 입상했다. 주거부문은 서구 화정동 녹원재 (엘에이엔 (LAN) 건축사사무소)가 입상을 광산구 수안동 '수안동 주택' (건축사사무소 플랜)이 동상에 선정됐다.

건축상을 수상한 모든 작품에는 건축상 동판이 부착되고, 설계건축사와 시공자에게 표창이



제23회 광주시 건축상 금상을 수상한 양림동 '아크레타 양림'

수여된다.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홍서에서 열리는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전시된다.

1989년부터 시작된 광주시 건축상은 건축사, 대학교수 등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비주거 부문에 은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과 주거 부문에 은상 1점, 동상 1점 등 총 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김혜진기자 hj@srb.co.kr

'제1회 조정래문학상' 성석제 작가 '왕은 안녕하시다'

제1회 조정래문학상 수상작으로 소설가 성석제(사진) 작가의 장편소설 '왕은 안녕하시다'가 선정됐다.

보성군 별교읍민회는 조정래의 문학적 성취를 기리고 중견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정래 문학상'을 제정했다. 현재 활동 중인 작가의 이름을 딴 문학상은 다소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문학상 심사 대상은 중견 작가가 발표한 3년 이내 소설로 한정했다.

상금은 1억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 별교읍민회관에서 열리는 별교 특설무대에서 열



린다. 성 작가는 지난 1995년 '문학동네'에 단편소설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소설집 '그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 '첫사랑', '호랑이를 봤다', '황반근은 이렇게 말했다'와 장편소설 '왕을 찾아서', '인간의 힘', '도망자 이치도', '위풍당당', '투명인간', 산문집 '소풍', '칼과 황홀', '꾸들꾸들 물고기씨, 어딜 가시나' 등이 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최태지 감독과 함께하는 '호두까기 인형'

오늘 광주문화재단 수요렉처콘서트

발레를 보며 서양 발레 음악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수요렉처콘서트가 23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렉처콘서트는 최태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의 강의 '호두까기 인형'으로 진행된다. 주요 장면을 남녀 무용수의 춤으로 감상하며 서양 발레음악의 세계를 함께 탐구해본다.

특히 이날 무대는 시립발레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발레리노 우건희와 발레리나 강은혜가 출연한다. 이번 강의를 맡은 최태지 예술감독은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로 국립발레단 객원 무용수를 거쳐 단장과 예술감독, 정동극장 극장장, 모스크바국제발레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아시아문화원 이사과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 문의 062-670-7942. 김혜진기자 hj@srb.co.kr